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술 2023-185

2023.12.07.

이 보고서는 시가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IT부품

# 세진티에스(067770)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오주한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 세진티에스(06770)

LCD에 필요한 백라이트 유닛용 부품 제조 업체

## 기업정보(2023/11/28 기준)

대표자	김인식
설립일자	1996년 06월 07일
상장일자	2004년 01월 09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전자부품 제조업
주요제품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외

## 시세정보(2023/11/28 기준)

현재가(원)	2,890원
액면가(원)	500원
시가총액(억 원)	243억 원
발행주식수	8,396,593주
52주 최고가(원)	4,800원
52주 최저가(원)	2,295원
외국인지분율	1.22%
주요주주	
김인식	46.71%

## ■ 주력사업은 LCD 백라이트 유닛용 부품 제조

세진티에스(이하 동사)는 1996년 6월 설립되었으며, 2004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2023년 11월 기준 동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국에 위치한 세개진광전소주 유한회사와 베트남에 위치한 세진옵티컬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주요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다. 동사의 주력사업은 TV의 LCD(Liquid Crystal Display, 액정디스플레이)에 필요한 백라이트유닛(Back Light Unit, BLU)용 광기능성 필름의 주요 부품 '반사시트, 보호시트, 확산시트, 프리즘시트 등'의 가공 및 제조이다.

## ■ OLED의 등장으로 LCD 시장 포화단계에 진입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디스플레이는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질을 이용 '자기발광형 디스플레이'로 LCD에서 백라이트 유닛을 활용해 색을 표현할 필요가 없다. 이에, OLED 시장이 성장할수록 LCD의 핵심부품 백라이트 유닛 및 이하 후방산업의 시장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국내 시장의 백라이트 유닛 및 관련 핵심 부품 가공 생산 기업들은 매출액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 ■ 2024년 전방산업 내 생산량 확대 이슈

동사의 주요 전방산업 내 주요 매출처와 연관된 기업들에 대한 생산량 확대 이슈로 2024년 동사의 매출액 변동이 기대된다. 특히, LCD TV 부문에 있어 삼성전자는 LCD 패널에 대한 중국 수입 비중을 줄이고 LG디스플레이향 매입 비중을 2배가량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게이밍 모니터 부문이 디스플레이산업 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성장하면서 LG전자, 삼성전자 등이 해당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으로 보여 게이밍 모니터에 필요한 LCD 패널 생산량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0	327.0	54.2	46.3	14.2	42.3	12.9	10.8	9.9	8.0	504	4,975	12.1	1.2
2021	270.0	-17.4	21.3	7.9	28.7	10.6	6.6	6.2	6.6	341	5,464	15.0	0.9
2022	165.3	-38.8	-19.0	-11.5	-6.4	-3.9	-1.4	-1.3	4.3	-76	5,424	-	0.6

## 기업경쟁력

### 광기능성 필름 제조 기술 보유

- 1996년 6월 설립되어 약 27년의 광기능성 필름 인쇄, 가공, 제조 노하우 보유
- 광기능성 필름 제조방법, 제조장비, 인쇄방법 관련 등록 특허권 8건 보유

### 인지도 높은 매출처 확보

- 업계 인지도가 높은 SK MWS, 미래나노텍, 신화인터텍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음.
- 디스플레이용·모바일 소재용 등 제조업체 'SK MWS'
- 필름업계 최초 마이크로 렌즈타입 광기능성 필름 개발 성공한 '미래나노텍'

##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 동사의 핵심기술 및 주요사업 부문

- 동사의 핵심기술
  - 직하 방식의 디스플레이 장치용 패터닝 시트층의 제조방법 기술 보유
  - 백라이트 유닛 시트의 주연부 표면요철 보호를 위한 인쇄방법 기술 보유

### 동사의 주요 제품



## 시장경쟁력

### 국내 백라이트 유닛 시장규모

년도	시장규모	연평균 성장률
2021년	6,290억 원	▼6.00%
2026년	4,616억 원	

### 최근 전 세계 TV 출하량

년도	시장규모
2018년	2억 1,900만 대
2022년	2억 200만 대

- 세계 TV 출하량은 매년 감소, 디스플레이산업 부진
- OLED 등장으로 LCD 산업 규모는 더욱 축소
- 백라이트 유닛 시장은 디스플레이 패널, 디스플레이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속 후방산업으로 전방산업 주요 업체들의 생산량 감소에 매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 E

(환경경영)

- 동사는 환경(E) 부문에서 모든 경영 활동에 국내외 환경 법규를 준수하여 관련 법상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 동사는 회사 내부적으로 점심 시간 조명과 냉난방 끄기, 종이 및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 등 일상 속 탄소저감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

###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소비자 및 고객사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중요 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규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 동사는 휴가, 직원 대출, 자기계발지원 등의 직원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G

(기업지배구조)

- 동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포함해서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근 감사를 선임하고 있음.
- 동사는 정관 및 운영규정 등을 통해 배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통해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 I. 기업 현황

## 디스플레이용 광기능성 필름 인쇄, 가공 업체

동사는 평면 디스플레이 부품품 생산 및 판매 업체로, LED 및 LCD용 광기능성 필름의 주요 부품인 반사시트, 보호시트, 확산시트, 프리즘시트 등을 가공 생산하여, 세계 TV 생산 1, 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VD 사업부, SDC, 희성전자, 원우정밀, 뉴옵틱스 등에 납품하고 있다.

## ■ 기업개요

동사는 액정 표시장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6년 06월 07일에 설립되었으며, LED 및 LCD용 광기능성 필름의 주요 부품인 반사시트, 보호시트, 확산시트, 프리즘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로 51-43 소재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한편, 2004년 1월 9일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일자	내용
1996.06	(주)세진티에스 설립
2003.03	세개진광전 유한공사 설립
2004.01	코스닥시장 상장
2010.05	신규사업 결정(광학패턴롤에 의한 압출성형 필름 생산)
2013.12	세개진광전 유한공사 지분 추가취득
2016.06	압출 성형 필름 양산 개시
2016.07	세진옵티컬(주)(베트남) 설립
2018.02	세진옵티컬(주)(베트남) 추가 투자 결정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가공

2023년 9월 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김인식 대표이사로 46.71%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김경미 [0.61%], 한명희 [0.25%] 등 특수관계인과 기타 소액 주주 [52.43%]가 보유하고 있다.

[표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주주명	지분율(%)
김인식 대표이사	46.71
김경미 氏 등 특수관계인	0.86
기타	52.43
합계	100.00

[그림 1] 동사의 주주구성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가공



## ■ 주요사업

동사는 LED 및 LCD용 광기능성 필름의 주요 부품인 반사시트, 보호시트, 확산시트, 프리즘시트 등을 가공 생산하여, 세계 TV 생산 1, 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VD 사업부, SDC, 희성전자, 원우정밀, 뉴옵틱스 등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LED 및 LCD용 광기능성 SHEET는 폴리에스타 필름을 가공한 부품으로 LED 및 LCD상 광형합성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이 요구되어지는 부품이며, 신규 경쟁업체의 진입장벽이 높고 SKC MWS 등 국산 원자재를 근간으로 동 분야에 있어 국내 유수의 LED 및 LCD 광기능성 SHEET 생산 전문업체로 성장하였다.

LED 및 LCD 기술은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 기술 중의 하나로서, 관련 산업은 기술집약적 및 자본 집약적인 특성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대량 생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고, 생산업체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며, 당사를 포함한 업계 전체의 생산능력 증대가 지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동사의 판매 방법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및 해외 LCD 패널 제조업체가 최종 고객이며 각 LCD 업체별 광원 부품 공급업체인 백라이트 조립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생산공급한다.

또한, SKC MWS, 미래나노텍, 신화인터텍 등 국내 대기업 고객의 경우 SCM 체제 도입으로, 동사는 원자재 업체로부터 제품 임가공을 수주하는 형태로 판매하기도 한다.

## ■ 동사의 ESG 활동



환경(E) 부문에서, 동사는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지만, 모든 경영 활동에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여 관련 법상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기업의 환경 관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점심 시간 조명과 냉난방 끄기, 계단 이용하기, 종이 및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 등 일상 속 탄소저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S) 부문에서, 동사는 소비자 및 고객사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중요 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규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다. 또한, 휴가, 직원 대출, 자기계발지원 등의 직원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동사의 사업보고서(2022.12)에 따르면, 동사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41.9%로 동 산업의 여성고용비율 평균 29.1%를 상회한다. 또한, 동사의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79.9%로 동 산업 평균인 72.8%를 상회하며,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 역시 93.2%로 동 산업 평균인 89.4%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동사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및 급여액

(단위: 명, 년, 백만원)

성별	직원 수			평균 근속연수		1인당 연평균 급여액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합계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18	0	18	14.7	9.4	45.8	83.4
여	13	0	13	13.7	8.4	36.6	60.7
합계	31	0	31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2),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NICE디앤비 재가공



지배구조(G) 부문에서, 동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근 감사를 선임하여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정관 및 운영규정 등을 통해 배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 공시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 II. 시장 동향

## OLED의 등장으로 LCD 시장은 포화단계에 진입했으나, 2024년 긍정적인 이슈 존재

자체 발광이 가능한 OLED가 등장하며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LCD 시장은 포화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군(LCD TV)이 높은 비중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LCD 디스플레이 산업 주요 업체들의 원재료 매입처 변화 및 생산량 확대 이슈로 동사의 향후 매출액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 전방산업: 백라이트 유닛 → LCD 패널 → LCD 디스플레이 산업

LCD용 백라이트 유닛은 LCD 패널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TV, 모니터, 노트북 등 LCD 디스플레이산업 내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동사는 LCD용 백라이트 유닛에 들어가는 광기능성 필름을 가공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방산업인 LCD 디스플레이산업에 높은 의존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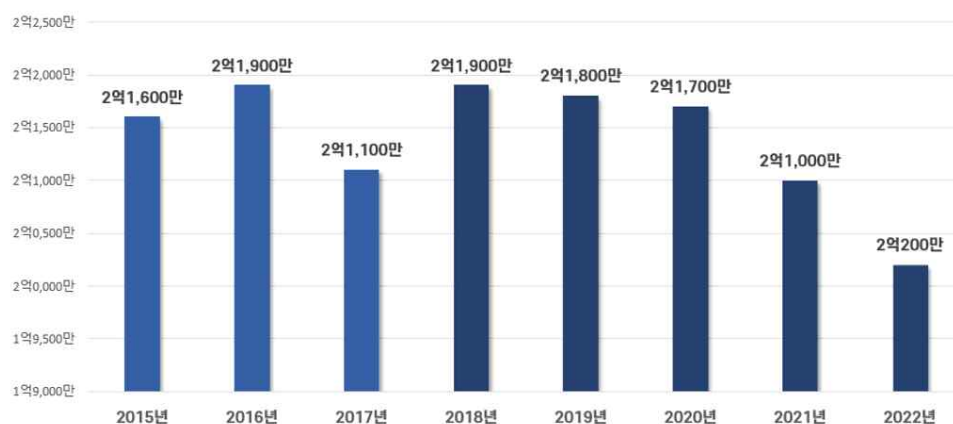
LCD용 백라이트 유닛은 램프, 도광판, 프리즘 시트, 확산 시트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LCD 패널의 휘도(밝기), 소비전력, 화질, 두께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 ▶ TV용 LCD 시장 동향

글로벌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하락하고 2023년 1분기 세계 TV 판매량은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데이터 리서치 기업 Statista에 따르면, 전 세계 TV 출하량은 2018년 2억 1,900만 대 이후 2022년 2억 200만 대로 꾸준히 출하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2] 세계 TV 출하량 추이(2015~2022년)

(단위: 대)



\*출처: Statista 'Television unit shipments worldwide', NICE디앤비 재가공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기준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포함된 QLED 시장은 전체 TV 시장의 8.0% 수준이며, 삼성전자는 이 중 57.5%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외 국내 LCD TV 제조업체로는 LG전자가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국의 LCD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LCD TV 고급화 및 대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24년 LCD 패널 구매량 가운데 중국산 LCD 패널 구입 비중을 낮추고 LG디스플레이 LCD 패널 매입 비중을 2023년 8%에서 16%인 2배로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공장은 LCD TV 패널 생산량을 올해 800만 대에서 내년 1,500만 대로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사는 전방산업 선두기업의 생산량 확대 속 주요 매출처의 생산규모 확대에 따라 일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LG디스플레이의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패널용 백라이트 부문의 원재료 비중은 12%에 달하며, 주요 매입처로는 희성전자 등이 있고 희성전자에 백라이트 부문 필수품을 동사가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LCD TV 부문 밸류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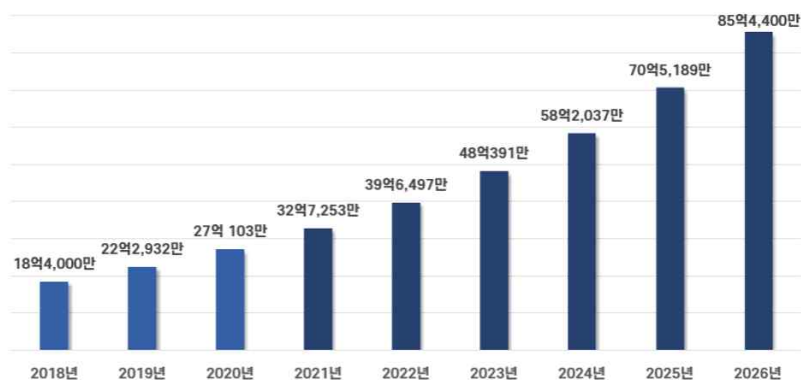
\*출처: LG디스플레이·희성전자·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가공

## ▶ 컴퓨터 모니터용 LCD 시장 동향: 게이밍 모니터 수요 확대 속 성장

최근, LCD 시장 규모 축소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LCD 모니터 출하량이 증가했다. 게이밍 모니터가 LCD 부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2023년 1분기 기준 글로벌 LCD 모니터 출하량은 2,880만 대로 직전 4분기 대비 7.4%, 전년 동기 대비 20.5% 감소했으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은 1분기를 기점으로 출하량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IDC에 따르면, 게이밍 모니터 시장 규모는 2018년 18억 4,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21.16%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6년 85억 4,500만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적극적으로 게이밍 모니터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세계 게이밍 모니터 시장 규모

(단위: 달러)



\*출처: IDC, Worldwide Gaming monitor, NICE디앤비 재가공



## ■ 백라이트 유닛 시장

백라이트 유닛은 LCD 패널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TV, 모니터, 노트북 등 다양한 LCD 디스플레이에 적용되어 해당 업황에 민감한 산업이다. 최근, 중국, 대만 등 국내외 기업의 시장 진입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림 5] 국내 백라이트 유닛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 NICE디앤비 재가공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국내 LCD용 백라이트 유닛의 출하 금액은 2017년 9,306억 원에서 2021년 6,290억 원으로 연평균 9.33% 감소하였으며, 시장 환경, 업황 등을 감안 시 이후 연평균 6.0% 감소하여, 2026년에는 4,616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LCD용 백라이트 유닛 시장은 희성전자, 뉴옵틱스, 한솔테크닉스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희성전자와 뉴옵틱스는 모두 동사의 주요 매출처이며, 최근 전방산업 업체들의 대형 LCD TV 개발 추진 속 필요 부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관된 밝기와 시야각 유지 및 효과적인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확산시트와 색 재현력의 중요성에 따른 프리즘시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형화와 함께 슬림화 TV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반사시트 부문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

## ■ 백라이트 유닛 시장 전망

LCD 시장 내 중국 업체 대비 국내 업체들의 LCD 패널 부문 가격경쟁력 저하, 투자 감소, 생산량 감소로 세계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 시장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경쟁력을 더 확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내 시장은 점차 떨어지는 가격경쟁력에 집중하기 보다는 OLED 투자에 집중하면서 LCD 패널 부문 제조를 중단하여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전방산업 시장 규모 감소로 백라이트 유닛 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 다만, 2024년 주요 기업들이 일부 LCD 패널에 대한 생산량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백라이트 유닛 시장 규모의 감소세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III. 기술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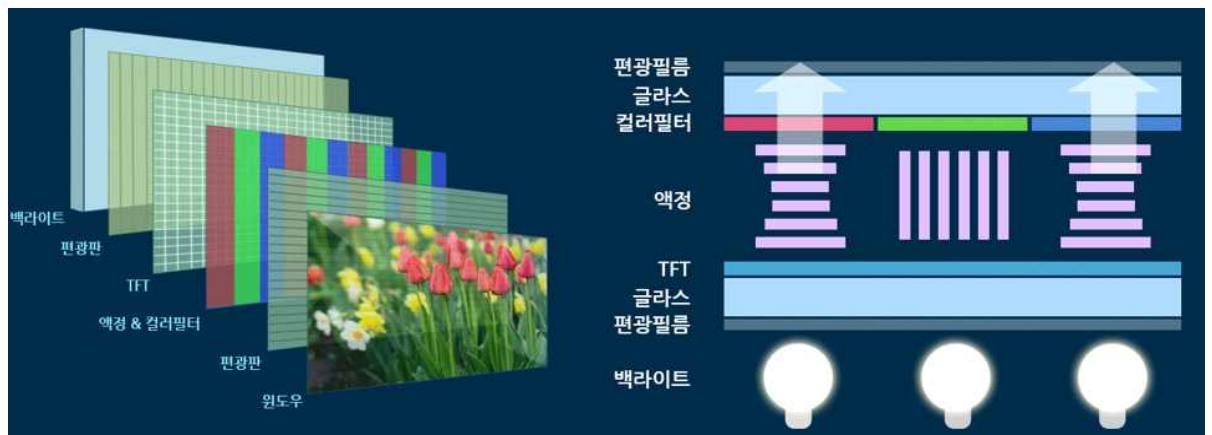
#### 광기능성 필름 인쇄 기술 보유

동사는 LCD의 주요 부품 백라이트 유닛의 구성품인 프리즘 시트, 확산시트, 반사시트, 보호시트 등의 광기능성 필름 인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광기능성 필름 제조 및 가공 관련 광기능성 필름 제조 장비, 제조 방법, 인쇄방법 등에 대한 등록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 ■ LCD 기술개요

LCD는 스마트폰, 모니터, TV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평판 디스플레이 중 하나로, 빛을 특정 방향으로 보내는 편광성질을 보유한 편광필름(이하 편광판)과 액체와 고체의 중간 특성을 가진 액정(Liquid Crystal), 다양한 색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컬러필터를 이용하여 백라이트유닛에서 발생한 빛의 통과량을 조절해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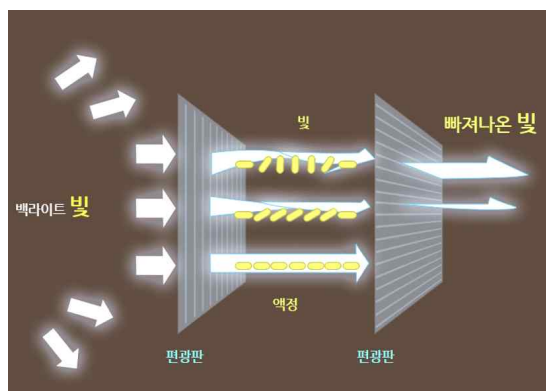
[그림 6] LCD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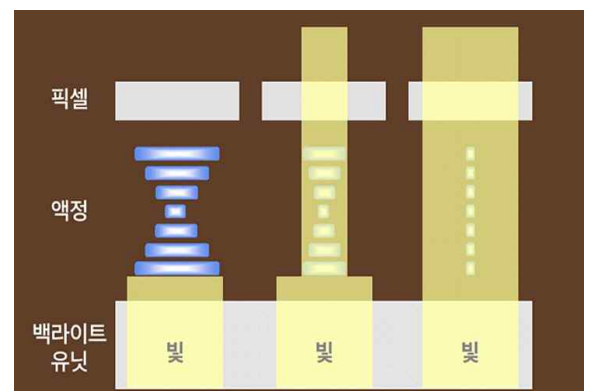
\*출처: 삼성디스플레이

편광판이란 편광성질을 보유한 얇은 필름으로, 2개의 편광판을 활용해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액정은 빛을 통과시키는 광학적 특성이 있고, 전기 자극을 주면 상태가 변하는 성질도 있어 LCD에서 픽셀의 빛을 통과시키거나 빛의 양(빛 투과율)을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림 7] 편광판의 작동 구조



[그림 8] 액정의 작동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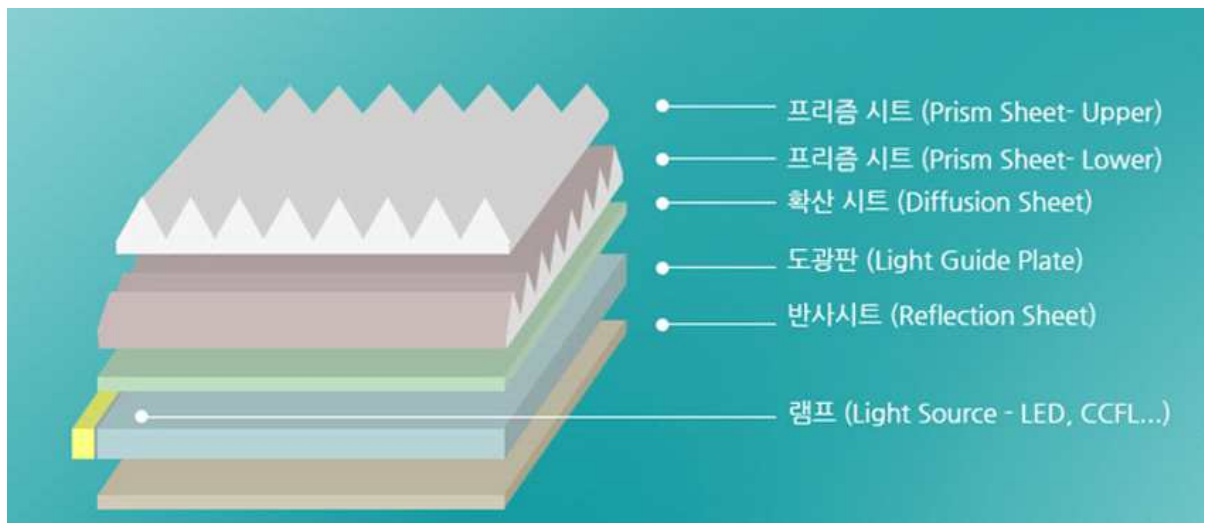
\*출처: 삼성디스플레이

컬러필터는 LCD에서 다양한 색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얇은 층으로 LCD 백라이트에서 나온 빛이 액정을 거쳐 컬러필터를 통과할 때 컬러필터 내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내는 부분을 지나면서 색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 ▶ 백라이트 유닛

백라이트 유닛(BLU, Back Light Unit)은 LCD패널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LCD는 자발광 형식의 OLED와 달리 빛을 내는 발광체가 없어 디스플레이 화면이 점등할 수 있도록 고르게 빛을 비추주는 조명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백라이트 유닛을 자세히 살펴보면, 프리즘 시트, 확산 시트, 도광판, 반사 시트, 램프 등 여러 층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 9] LCD 백라이트 구조



\*출처: 삼성디스플레이

[표 4] 백라이트 유닛 구성별 역할

구분	기능
프리즘 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리즘의 원리를 이용하여 백라이트유닛에서 각 방향으로 발산되는 빛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정렬시킴.</li> </ul>
확산 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광판에서 나온 빛을 시야각을 넓혀 빛을 산란시켜서 확산시킴.</li> </ul>
도광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빛을 화면 전 영역에 고르고 균일하게 분포시킴.</li> </ul>
반사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광판 반대면으로 발생하는 빛의 손실을 줄이면서 도광판 방향으로 반사시킴.</li> </ul>
램프 중 LED 렌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하형 LCD 모듈에서 광원인 LED에 바로 적용하여 빛을 균일하게 확산시킴.</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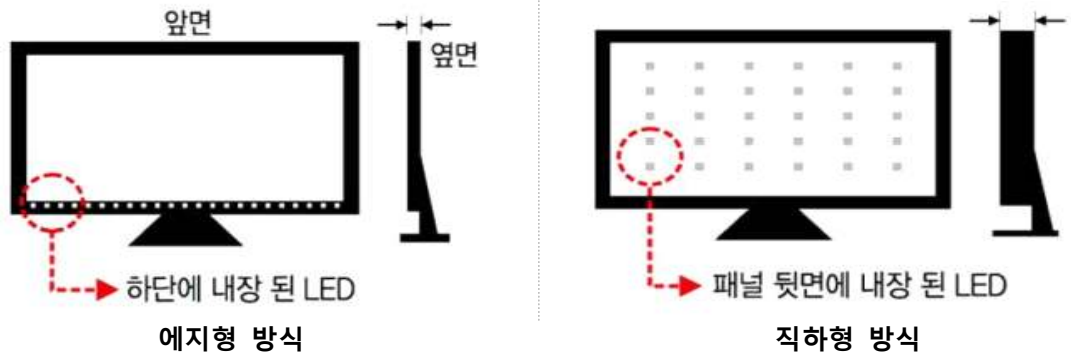
\*출처: 대한건설협회, NICE디앤비 재가공

휘도(Luminance)란 일정 면적을 통과하여 일정 입체각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말하는데,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휘도가 높다는 것은 더 밝은 화면을 의미한다. 다만, 높은 휘도에 눈이 노출되면 망막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용도, 화면까지의 거리, 주변의 밝기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휘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동사가 제조한 프리즘시트는 백라이트에서 나온 빛의 각도를 조정하여 휘도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넓은 광시야각을 확보해주고, 소비전력을 절감시키는 특징이 있다.

## ■ 휘도를 균일하게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용 패터닝필름 인쇄기술 보유

LED TV는 LCD TV의 백라이트유닛으로 LED를 사용하는 TV를 말한다. LCD TV 초기에는 주로 CCFL(Cold Cathode Fluorescence Lamp, 냉음극형광램프)을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LED가 얇은 두께와 높은 휘도로 선명한 화질을 가능하게 하는 특징이 있어 주로 사용된다. LCD TV는 백라이트의 위치에 따라 직하형과 에지형으로 구분되는데, 직하형은 LED를 LCD 후면에 배치해 정면으로 빛을 보내는 방식을 말하고, 에지형은 TV화면 장축에 LED를 선상으로 배열해 중앙부로 빛을 보내 도광판을 통해 반사시켜 정면으로 빛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보급형 TV에는 저렴하고 소비전력이 낮아 주로 직하형 LED가 쓰인다.

[그림 10] 에지형, 직하형 LED 백라이트유닛 비교



\*출처: IHS

일반적으로, 직하방식의 디스플레이는 광원이 장착된 위치의 직상부분은 밝고, 광원과 광원 사이의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둡다. 이렇게, 시트상 광의 밝기가 균일하지 않게 되면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장치의 선명도, 휘도 등이 균일하지 않게 되어 상품적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동사는 점 또는 선 패턴으로 인쇄된 필름을 직하 방식의 디스플레이 장치의 광원 정면에 배치하여 광원에서 조사되는 빛의 일부를 흡수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장치의 휘도를 균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장치의 직하방식의 디스플레이 장치용 패터닝 필름의 인쇄 방법’ 기술력에 대한 등록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 ■ SWOT 분석

[그림 11] SWOT 분석





## IV. 재무분석

## 최근 3개년 매출 감소 추이, 수익성 악화

동사는 LED 및 LCD 산업에 속해 있으며, 산업 특성상 TV, 휴대폰 등 전방산업의 수요변동에 민감한 특성을 보인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및 중국 시장의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가운데, 국내 주요 매출처의 생산량 규모 감소 속 외형 축소 및 수익성 악화 추세를 나타내었다.

## ■ 매출 감소 추이 지속

동사는 2020년 전년 대비 54.2% 증가한 327.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이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7.4% 감소한 2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외형 감소를 나타내었다. 또한, 2022년에도 38.8%의 매출액 감소율을 나타내며 전년에 이어 큰 폭의 외형 축소를 기록하였다.

한편, 2023년 3분기 누적 실적은 전년에 이어 실적 감소 추이를 나타낸 바, 전년 동기 대비 43.7% 감소한 75.8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 ■ 수익성 악화 추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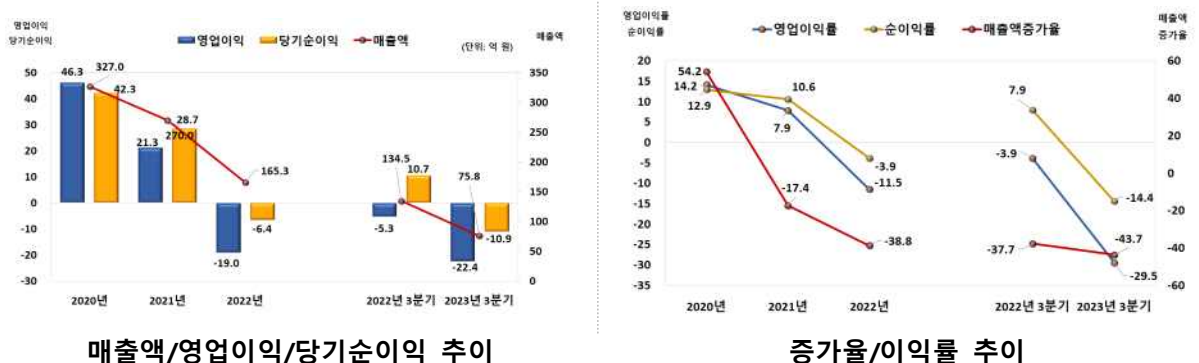
2020년 영업이익률은 14.2%를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의 영업 수익성을 나타냈으나, 2021년 매출 외형 축소로 인한 원가 부담 및 판매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감소한 7.9%를 기록하였다.

2022년에도 매출 외형 감소 폭이 증가함에 따라 19.0억 원의 영업손실 및 6.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하는 등, 전년 대비 크게 저하된 취약한 수익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2023년 3분기에는 22.4억 원의 영업손실 및 10.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전년에 이어 적자를 지속하였다.

[그림 12]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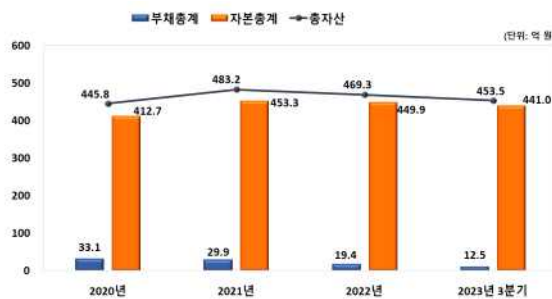
## ■ 재무 안전성은 큰 변동 없이 양호한 수준 유지

2020년 8.0%의 부채비율을 기록한 이후 2021년 순이익의 내부유보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으로 전년 대비 개선된 6.6%의 부채비율을 기록하였다. 2022년에는 적자 시현에도 불구하고, 적자 규모가 크지 않아, 4.3%의 부채비율을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의 재무안정성 지표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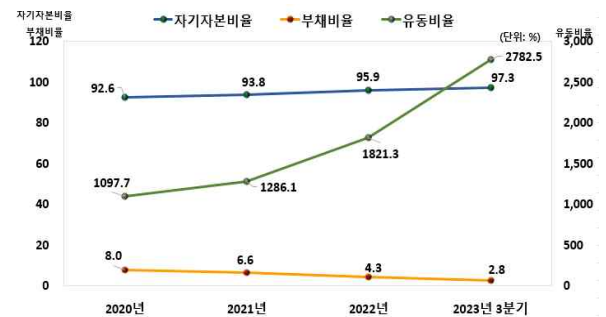
유동비율은 2020년 1,097.7%, 2021년 1,286.1%, 2022년 1,821.3%를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한편, 2023년 9월 말 적자 기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2.8%의 부채비율, 97.3%의 자기자본비율, 2,782.5%의 유동비율을 기록하며 전년 말 대비 개선된 재무안정성 지표를 나타내었다.

[그림 13]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산/부채/자본 비교



자본구조의 안정성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가공

[표 5]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매출액	327.0	270.0	165.3	134.5	75.8
매출액증가율(%)	54.2	-17.4	-38.8	-37.7	-43.7
영업이익	46.3	21.3	-19.0	-5.3	-22.4
영업이익률(%)	14.2	7.9	-11.5	-3.9	-29.5
순이익	42.3	28.7	-6.4	10.7	-10.9
순이익률(%)	12.9	10.6	-3.9	7.9	-14.4
부채총계	33.1	29.9	19.4	24.8	12.5
자본총계	412.7	453.3	449.9	478.3	441.0
총자산	445.8	483.2	469.3	503.2	453.5
유동비율(%)	1,097.7	1,286.1	1,821.3	1,514.0	2,782.5
부채비율(%)	8.0	6.6	4.3	5.2	2.8
자기자본비율(%)	92.6	93.8	95.9	95.1	97.3
영업현금흐름	63.0	42.2	22.7	19.0	-5.7
투자현금흐름	-10.6	-29.9	-90.9	-27.8	-11.7
재무현금흐름	-3.6	-3.2	-2.8	-2.1	-1.4
기말 현금	84.2	101.7	29.4	106.9	14.2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2023년 분기별 실적 및 전망은 분기 누적금액 임)

##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 2024년 일부 생산량 확대 이슈가 있으나 매출액 규모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OLED의 등장으로 동사가 속한 LCD 디스플레이산업은 하향 산업으로 포화 시장에 속해 신규 투자 금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더불어, 중국과 대만 등 경쟁 심화로 국내 생산량은 더욱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2024년 일부 품목군에서 생산량 확대 이슈가 있어 이에 따른 동사의 매출액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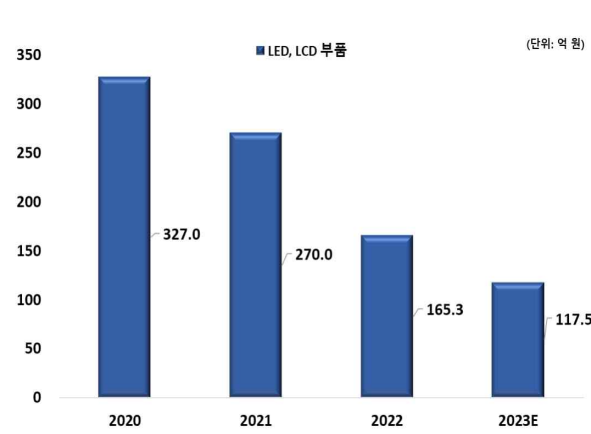
## ■ LCD 패널 생산량 확대 이슈 존재

동사의 주요 매출처 희성전자, 뉴옵틱스 등이 백라이트 유닛을 납품하는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 최종 LCD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선두기업에서 2024년 게이밍 모니터 등 품목에 대해 일부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전자는 기존 중국 수입 비중을 줄이고, 국내 LG디스플레이향 매입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LG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은 생산량 및 매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LCD 패널의 백라이트 유닛의 핵심 부품을 가공 생산하고 있는 동사도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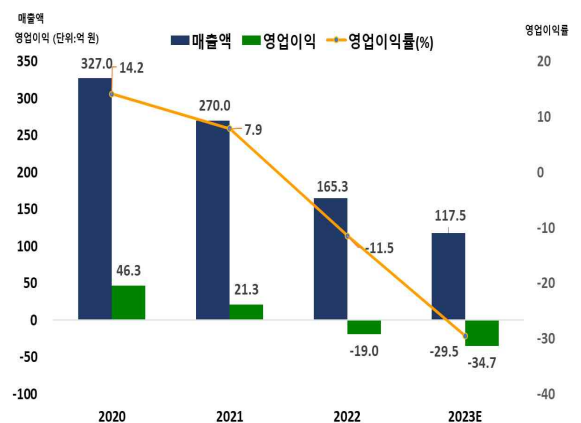
## ■ 동사 실적 전망

동사는 LCD의 백라이트 유닛용 핵심 부품을 가공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2020년 327억 원, 2021년 270억 원, 2022년 165.3억 원 및 올해 1, 2, 3분기 추이와 시장 상황을 살펴볼 때 당분간 매출액 규모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4년 생산량 확대 가능성이 있어 향후 수주 확보를 위해 백라이트 유닛의 핵심 부품 가공 생산 기술력 증진 및 기존 매출처 유지를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동사의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그림 15] 동사의 연간 실적 및 전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가공

[표 6] 동사의 사업부문별 연간 실적 및 분기별 전망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0	2021	2022	1Q2023	2Q2023	3Q2023	2023E
매출액	327.0	270.0	165.3	23.9	43.8	75.8	117.5
LED, LCD 부품	327.0	270.0	165.3	23.9	43.8	75.8	117.5
영업이익	46.3	21.3	-19.0	-14.2	-21.7	-22.4	-34.7
영업이익률(%)	14.2	7.9	-11.5	-59.4	-49.5	-29.5	-29.5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가공  
(2023년 분기별 실적 및 전망은 분기 누적금액 임)

##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	—	—
투자의견 없음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6] 동사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3년 11월 28일)